

## 『西遊記』의 觀世音菩薩 연구\*

서정희\*\*

### 【목 차】

1. 서론
2. 관세음보살의 명칭과 神格
3. 『西遊記』 속 관세음보살의 이미지와 그 특성 - 세속화, 인간화, 예술화
4. 『西遊記』 속 관세음보살의 역할과 그 상징적 의미
  - 1) 관세음보살의 역할
    - (1) 취경단 구성
    - (2) 재난의 조성 - 취경단의 信心 시험
    - (3) 재난의 해결
    - (4) 空性에 대한 깨달음으로의 인도 - 上求菩提, 下化衆生
  - 2) 관세음보살의 상징적 의미
5. 결론 -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

### 【초록】

본고는 먼저 관세음보살 명칭에 내포된 의미와 그의 신격(神格)을 살펴본 뒤, 『서유기』에 나타난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고찰함으로써 그 특징을 도출하고, 작품 속에 나타난 그의 역할과 의미를 고찰한 논문이다.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그녀는 엄숙하고 원융한 莊嚴像을 한 불교의 신이 아니라 예술적 가공을 통하여 인간화, 세속화, 통속화된 형상으로 재창조되어 소설 작품에 활기와 생기를 불어넣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관세음보살의 역할과 그 의미를 보면, 그녀는 취경단을 구성하고, 취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취경단원을 시험하며,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고난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하여 관세음보살이 의도하는 바는 취경단원들을 단련시키고 각성시켜 그들 모두를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적 경지를 높이는데 있다. 즉 취경단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chsuh@pusan.ac.kr)

원들 전원이 불교의 핵심교의 ‘空性’을 깨달아 그들 모두가 圓融無碍(원만한)한 覺者가 되어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역할이다. 이처럼 취경단원들을 각성시켜 대해방, 대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은『서유기』의 스토리를 이끌어 갈 뿐 아니라 주제 구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손오공 일행의 心路歷程이 우리 정신세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관세음보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칼 융(C.G. JUNG)의 분석심리학 이론을 시험적으로 적용하여 조명해 보고자 했다.

【키워드】 관세음보살, 손오공, 空性, 대자유, 心路歷程.

## 1. 서론

『서유기』에는 取經事業을 수행해 나가는 唐三藏, 孫悟空, 豬八戒, 沙悟淨 등 주연급 인물 이외에 神佛, 妖怪, 인간 등 조연급 혹은 엑스트라에 해당하는 다양한 인물 군이 등장한다. 이들 중 신불은 취경단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흉측한 요괴들의 대척점에 서서 취경단원들이 불경을 동토로 전하는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취경단원들을 돕는 신들은 크게 불교의 신과 도교의 신으로 나뉘는데, 이 신들은 각기 자신들이 구축한 도교와 불교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가지면서 서로 왕래하고 협조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유지해 나가는 일을 한다.<sup>1)</sup>

그런데 우주의 질서를 바로 세워 천상세계의 완전함을 인간 세상에 구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취경사업이 발의된다. 취경사업의 발의자가 석가여래불이라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총괄하는 인물은 관세음보살이다. 이외의 수많은 신불들은 취경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지지자들과 조력자의 역할을 맡는다. 관세음보살은 사업의 총 책임자로서『서유기』초반부터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면서 주제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세음보살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는 五聖을 논할 때, 부차적으로 언급하는 정도로 미미한 형편이다. 혹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민속학의 각도에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민간 신앙을 연구하거나 불교에서의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신통력, 구원력 등 종교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sup>2)</sup> 즉 『서유기』의 관세음보살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찾

1) 도교의 신들만의 힘으로 손오공을 제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석가여래불이 손오공을 사로잡음으로써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취경단원들이 무사히 목적지 서천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불교계와 도교계의 신들이 합심하여 취경단원들을 돕는 데, 이것 역시 신들 사이에 조성된 긴밀한 협력 관계 및 연관성을 보여준다.

2)王海梅, 「西遊記與觀音信仰」, 『濰坊學院學報』, 第三卷第五期, 2003.09; 이종섭 『觀世音菩薩 信行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이동현, 『觀音念佛에서 感應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지금까지 평론가들에 의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해 온 관세음보살이 누구인지, 소설작품 속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는지, 어떠한 역할과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 관세음보살이라는 인물에 담겨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서유기』 연구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고는 먼저 관세음보살 명칭에 내포된 의미와 그의 신격을 살펴본 뒤, 『서유기』에 나타난 관세음보살의 형상과 이미지를 고찰함으로써 그의 특징을 도출하고 나아가 작품 속에서 차지하는 그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유기』의 스토리와 주제 구성에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칼 융(C.G. JUNG)의 분석심리학 이론을 적용하여 손오공 일행의 心路歷程이 우리 정신세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조명해 보고자 한다.

## 2. 관세음보살의 명칭과 神格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불교에서 가장 친근한 불보살 名號중 하나가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은 일반적으로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중생을 구제할 것을 근본서원으로 하는 보살로서 그의 명칭은 ‘光世音’, ‘觀世音自在’, ‘觀自在’, ‘觀世自在’라고 불리며 짧게 ‘觀音’이라고도 한다.<sup>3)</sup>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때에는 구원해 달라는 중생의 소리를 觀하고 즉시 구제해 준다는 뜻으로 관세음보살의 구원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지칭하는 명호이다. 관세음보살은 관자재보살로도 불리는데 이는 관세음보살의 본체의 특징에 입각하여 지혜의 완성자로서의 자재함에 초점을 맞춘 명호로 볼 수 있다.<sup>4)</sup>

관세음보살의 산스크리트어 원명은 ‘Avalokiteśvara(아바로키테-스바라)’이며 ‘세속을 관찰하는 자재자’ 또는 ‘世間の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sup>5)</sup> 보살 ‘bodhisattva’란 말은 ‘bodhi’와 ‘sattva’의 합성어로 ‘지혜가 있는 有情’, ‘지혜를 추구하는 有情’이며 수행자로서 ‘보리(菩提)를 구하고 있는 有情’, 또는 ‘보리를 얻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有情’으로 번역된다.<sup>6)</sup>

보리를 얻은 유정의 존재로서의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해주는 ‘救苦救難’의 보살로 알려져 있다. 중생이 당면한 고통을 해결해 주는 관세음보살의 능력은 세상의 소리를 살핀다는 의미를 가진 관세음이라는 명칭에 잘 나타나 있다. 관세음의 세상의 소리를 살피는 범위는 무한한 것으로 이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를 살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에는 누구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듣고 그의 소원에 응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sup>7)</sup> 관세음보살의 명칭이 관세음보살인

3) 智冠珣, 『伽山佛教大辭林』, 伽山佛教文化研究院出版部, 1978, p.67.

4) 舊譯에서는 관세음보살로, 唐 玄奘의 新譯에서는 관자재보살로 번역하고 있다.

5) 이종섭, 『觀世音菩薩 信行 研究』, p.13.

6) 『觀世音菩薩 信行 研究』, pp.13-14.

7) 천태불교문화연구원편, 『묘법연화경』,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2016, pp.708-713.

이유는 고통 받는 수많은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의 威神力과神通력과 중생구제의 대자대비의 원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면, 그 즉시 음성을 관하여 중생들의 고뇌를 파악하고 모든 고뇌로부터 그들을 해탈케 하는 보살이라는 것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관세음보살의 여성성에 관한 문제이다.

관세음보살은『서유기』에서 여성의 몸으로 등장하는데 사실 관세음보살을 위시한 일체 제불은 남녀의 제한을 벗어나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어떠한 相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는 관세음보살이 남성과 여성의 속성을 비롯한 모든 이원성(二元性)을 넘어서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생의 인연에 따라 남성, 여성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sup>8)</sup>

본래 인도의 관세음보살은 남성상으로 示現되었다. 그러므로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와 관음 신앙이 전파되던 시기 중국에 소개된 관세음보살은 남성상을 취하고 있지만 불교가 널리 전파되면서 민중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남북조 시기 이미 여성상의 관세음보살이 출현하기 시작했다.<sup>9)</sup> 이후 당 시기를 거쳐 독자적인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여성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점점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송에 들어오면서 여성 관세음보살은 이야기, 전설, 소설, 寶卷 등에 등장하면서 점점 더 민간에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관세음보살은 당송시기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변화를 거쳐 여성의 자애로움과 부드러움을 가진 인간화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민간 신앙 속에서 관세음보살은 부드러움과 자애로움을 가진 여성의 특징을 지닌 형상으로 현현하는데 이는 민중이 관세음보살에게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이후 관세음보살 신앙이 중국에서 가장 널리 유포된 사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한다.

이렇게 송대 이후 자애롭고 아리따운 여성으로 자리 잡은 관세음보살은『서유기』에서 그 이전의 어떤 문헌에서 묘사한 것보다 더욱 확장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표현된다.

### 3. 『西遊記』 속 관세음보살의 이미지와 그 특성

#### - 세속화, 인간화, 예술화

『서유기』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명칭은 ‘南海普陀落伽山大慈大悲救苦救難靈感觀世音菩薩’이다. 남해보타락가산은 먼저 그가 坐定하고 있는 지명을 나타내며 대자대비는 그의 무한한 감응력을 나타내고 救苦救難은 중생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는 그의 救援力을 표시하고 있

8) 관세음보살은 그 형상을 달리 함에 6觀音, 7觀音, 15觀音, 25觀音, 33觀音으로 應身한다. 『伽山佛教大辭林』, p.68.

9) 중국에서 가장 오래 된 관세음보살에 대한 기록은 동진 시대 法顯의 『高僧法顯傳』이다. 법현이 399년에 인도에 가서 413년 중국으로 돌아온 뒤 남긴 기록을 통하여 관세음보살이 중국으로 들어 온 시기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0) 唐高宗 李治 永隆 元年(680년)에 완성된 관세음보살상은 완전한 여성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당대 유명한 화가인 吳道子, 閻立本이 그린 관세음상은 자태가 우아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溫金玉, 『觀世音菩薩與女性』, 『中華文化論壇』, 第4期, 1996, p.86.

다. 『서유기』에 보이는 관세음보살의 형상과 능력을 통하여 그에게 부여된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관세음보살의 거주지는 南海 落伽山 潮音洞이다.
- ② 관세음보살의 성별은 여성이다.
- ③ 관세음보살은 신통력을 지니고 있다. 救苦救難의 구원의 힘을 지닌 보살로서 이러한 구원이 가능한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신통력에 의거한다.<sup>11)</sup>
- ④ 관세음보살은 광대무변한 자비심을 지니고 있다. 그가 모든 중생의 고통 받는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자비심에 의거한다.
- ⑤ 관세음보살은 평소 좌우로 善財童子, 龍女를 거느리고 있으며, 호법 木叉가 호위하며 紫竹林 밖에는 24路 諸天이 지키고 있으며 낙가산 위에는 熊羆가 호위하며 밖으로 출타할 때는 백앵무가 날개를 펴고 앞을 인도하며 날고, 善財童子和 木叉가 수행한다.
- ⑥ 관세음보살은 아름다운 여성의 자태와 용모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손오공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관세음보살에 대한 살펴보기, 훑쳐보기 등의 행동을 통하여 관세음보살에 대해 남성적인 관심을 표시한다.<sup>12)</sup> 이와 같은 묘사는 스승과 제자, 신과 원숭이라는 설정과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보여주며 이는 소설의 재미와 흥미를 배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 ⑦ 관세음보살은 유머러스하고 해학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그의 특성은 손오공과의 사이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서유기』의 흥미와 재미를 고조시킨다. 이러한 특징은 『서유기』에 내재된 풍자적, 해학적 구조에서 비롯된다.

①~④에서는 신격으로서의 관세음보살의 거처, 성별, 자비심, 신통력을 개괄하고 있다면, ⑤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제자들을 열거하며 그들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관세음보살의 威信力을 높이기 위한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⑥~⑦은『서유기』에서 관세음보살이 예술적 창조과정을 통하여 인간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문학적 처리는 관세음보살이 장엄하고 신성한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감과 다정함을 갖춘 자비의 여신, 구제구난의 여신으로 거듭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 위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의 면모와 그 변화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11) 『서유기』에 등장하는 신불과 요괴들은 뛰어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의 신통력은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관세음보살은 ‘무한한 신통력과 무수하게 변신할 수 있는 몸(無邊法力, 億萬化身)’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가 들고 다니는 淨瓶은 순식간에 온 바다 물을 다 가져와 어떠한 것으로도 끌 수 없는 三昧眞火의 불을 끌 수 있다. 일찍이 관세음보살은 煉丹爐에서 타 버린 버드나무가지를 다시 淨瓶에 꽂아 살려낸다. 이로부터 정병 안의 감로수는 죽은 것을 되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은 죽은 생명을 재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화신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염송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원력을 지니고 있다.

12) 이는 매우 은근하고 완곡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행간의 맥락을 짚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다.

보도록 하겠다.

이치는 사덕을 두루 갖추었고, 지혜는 금빛 몸에 가득 찼네. 푸른 구슬 끈을 드리우고, 향기로운 귀걸이에는 빛나는 구슬 매달았네. 검은 구름이 기묘하게 겹친 듯한 반룡제, 수놓은 허리 띠에 가벼이 날리는 채봉령. 벽옥 끈 두른 하얀 비단 옷에는 상서로운 빛이 감싸고, 비단 용 치마 금실 끈에는 상서로운 기운 휘감아 도네. 초승달 같은 눈썹과 별 같은 두 눈. 옥 같은 얼굴은 태어나면서부터 웃음 가득하고, 입술은 붉은 점 하나 찍은 듯. 맑은 병에 감로는 해마다 가득하고, 비스듬히 늘어진 머들은 해마다 푸르네. 팔난을 풀고 중생을 제도하며 자비와 연민의 마음 크네. 그러므로 태산을 진압하고 남해에 거하며, 고통을 구해주고 하소연 소리 찾아 들어 주니 만 번 부르면 만 번 응답하고, 천 번 거룩하고 천 번 영험하네. 난조 같은 마음은 자주 대나무를 좋아하고, 헤란 같은 성품은 향기로운 등나무를 사랑하네. 그는 낙가산의 자비로운 주인이자, 조음동의 살아 있는 관세음보살이네. (理圓四德, 智滿金身. 纓絡垂珠翠, 香環結寶明. 烏雲巧疊盤龍髻, 繡帶輕飄彩鳳翎. 碧玉紐, 素羅袍, 祥光籠罩; 錦絨裙, 金落索, 瑞氣遮迎. 眉如小月, 眼似雙星. 玉面天生喜, 朱脣一點紅. 淨瓶甘露年年盛, 斜插垂楊歲歲青. 解八難, 度羣生, 大慈憫. 故鎮太山, 居南海, 救苦尋聲, 萬稱萬應, 千聖千靈. 蘭心欣紫竹, 蕙性愛香藤. 他是落伽山上慈悲主, 潮音洞裏活觀音.)<sup>13)</sup>

위의 시는 제8회에 인용된 것으로 관세음보살의 용모, 장신구, 거처, 공덕 등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四德을 두루 갖춘 고귀한 존재로서 눈부신 보석들로 장엄하게 치장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초승달 같은 눈썹에 별 같은 눈을 가지고 붉은 점 하나를 찍은 듯한 입술을 가진 매우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한 손에는 생명을 다시 살어나게 하는 감로수 병과 또 다른 손에는 버들가지를 든 매혹적인 미인의 모습을 한 인물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모습이다.<sup>14)</sup>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莊嚴像을 갖춘 관세음보살은 광대무변한 지혜와 자비로움을 겸비하고 언제라도 고통 받는 중생들의 부름에 만 번이면 만 번 응답하는 대자대비, 救濟救難의 보살로 그려져 있다. 이처럼 여성적 아름다움과 신의 장엄함을 겸비하고 있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는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보면 :

멀리 재난 구해주실 관세음보살을 보니 남아 있는 대나무 위에 단정히 앉아 계시네. 귀찮아 매무새도 다듬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아리따움이 흘러넘치네. 헝클어진 등지 머리, 끈으로 묶어 본적이 없다네. 희고 푸른 겉옷은 걸치지 않고 몸에는 꼭 맞는 적삼만을 입고 있네. 풍성한 허리엔 비단 치마 둘렀고 두 발은 그대로 맨발인 채. 어깨에는 비단 띠도 두르지 않았고, 두 팔을 그 대로 드러내고 있네. 옥 같은 손에 쇠칼을 들고 한창 대나무를 쪼개고 있네. (遠觀救苦尊, 盤坐襯殘簪. 懶散怕梳妝, 容顏多綽約. 散挽一窩絲, 未曾帶纓絡. 不掛素藍袍, 貼身小襖縛. 漫腰束錦裙, 赤了一雙腳. 披肩繡帶無, 精光兩臂膊. 玉手執鋼刀, 正把竹皮削.)<sup>15)</sup>

이 시는 通天下 괴물에게 사로잡힌 당삼장을 구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러 간 손오공이 관세음보살의 거처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몰래 그를 훑쳐보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옷매무

13)『서유기』, 臺北, 華正書局, 1978, 제8회, p.81.

14)『서유기』에서 관세음보살 33應身 가운데 ‘楊柳觀音’, ‘魚籃觀音’, ‘白衣觀音’을 확인할 수 있다.

15)『서유기』, 49회, pp.569-570.

새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관세음보살의 풍만한 허리, 형클어진 머리, 두 팔을 드러낸 채 맨 발로 묘사된 그의 흐트러진 모습에서 장엄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한 신이 아닌 풍만한 여성의 매력을 지닌 여인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첫 번째 인용문에 보이는 관세음보살의 이미지가 신의 모습을 한 것이라면, 두 번째 인용문에 보이는 이미지는 고풍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인간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은 관세음보살이 더 이상 신성한 신의 세계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神聖에서 世俗으로 世俗化되고 인간화된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자태와 감정을 지닌 매력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관세음보살은 더 이상 신앙 속 경배의 대상으로 신격화된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친근하게 다가갈 구원을 청할 수 있는 인물로 재창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인간화한 관세음보살은 인간처럼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방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등 인간의 성정과 태도를 가진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에게 부여된 인간적 면모는 유머러스한 말투와 태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신에게서 연상되는 圓融하고 원만한 모습보다는 날카로운 말투로 손오공과 말씨름을 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손오공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꼬집거나 통속적인 언어로 손오공을 비하하는데, 이는 신성하고 장엄한 신의 이미지에 대한 예상과 기대의 일탈을 가져와 뜻밖의 유머와 해학을 맛보게도 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서유기』의 관세음보살은 엄숙하고 원용한 장엄상을 한 불교의 신이 아니라 예술적 가공을 통하여 인간화, 세속화, 통속화된 형상으로 재창조되어 소설 작품에 활기와 생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탁월한 문학적 장치를 동원하여 아름다운 미모와 유머, 신랄함 등 인간미 넘치는 통속적인 인물 관세음보살을 탄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 『西遊記』 속 관세음보살의 역할과 그 상징적 의미

##### 1) 관세음보살의 역할

관세음보살은 취경에 적합한 단원을 선발하고 취경의 路程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등 취경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西遊의 전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의 행동을 정리하면, 그의 활약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관세음보살이 꾸린 취경단은 9\*9 81개라는 고난을 거쳐야만 목적지인 서천 靈山에 도달하여 불경을 가지고 동토로 돌아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취경단은 ‘千山萬水’의 예측 불가능한 자연계의 위험을 극복하고 그들을 향해 달려드는 흉악한 요괴, 그리고 무지몽매한 인간들과의 충돌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목적지 靈山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위험천만한 취경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의 도움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그는 최적의

인물로 취경단을 구성하고, 취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그들을 시험하며,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앞장선다.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이 행동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취경단원들이 취경이라는 미션에 내재된 의미를 깨달아 그들의 정신적 경지를 높이는 데에 있다. 취경사업에서의 그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 1) 취경단 구성; 2) 재난의 조성-취경단의 信心 시험-; 3) 재난의 해결; 4) 空性에 대한 깨달음으로의 인도-上求菩提, 下化衆生 등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1) 취경단 구성

관세음보살은 취경사업의 총 책임자로서 당나라로 가 唐 玄奘을 발탁하고 현장을 靈山까지 보호하고 올 제자를 선정한다. 취경인을 호위하고 올 제자로 선택된 인물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과 용 등 네 사람이다. 이 네 사람은 모두 살생의 죄를 지은 죄인들로서 관세음보살의 안배 아래 10만 8천리의 속죄의 노정을 완주함으로써 지난날의 죄를 씻고 원만공덕을 쌓아 각기 불교계의 신으로 거듭 나게 된다.<sup>16)</sup>

### (2) 재난의 조성 - 취경단의 信心 시험

관세음보살은 취경단원들이 자력으로 재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現身하여 재난을 해결해 주는 역할 이외에 때로는 직간접적으로 재난을 조성하여 취경단원들의 의지와 신심을 확인하기도 한다.

제99회에 관세음보살은 취경단원을 보호하던 신들이 작성한 재난부에 재난 하나가 부족함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급하게 명령을 내린다.

보살은 재난 장부를 한 번 훑어보더니 급히 전갈을 내리기를 : “불문에서는 99 81이라야만 완전함으로 돌아간다. 성승이 80난을 거쳤지만 아직 난 하나가 부족하여 이 수를 완성하지 못했다.” 급히 게체에게 : “빨리 금강을 쫓아가서 재난 하나를 더 일으키도록 하라.”고 명을 내렸다.(菩薩將難簿日過了一遍, 急傳聲道 : “佛門中‘九九’歸真。聖僧受過八十難, 還少一難, 不得完成此數。” 卽命揭諦, “趕上金剛, 還生一難者。”) <sup>17)</sup>

완전함을 상징하는 9\*9 81이라는 숫자의 재난을 채워야만 취경단원들이 正果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재난의 수가 부족한 사실을 발견한 관세음보살은 재난을 하나 더 일으켜 숫자를 채울 것을 지시한다.<sup>18)</sup> 이는『서유기』의 재난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계획 아래 크게는 천상세계 신들의 의도 아래 만들어진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즉 모든 고난은 취경단원들의 취경에 대한 신심과 의지력을 시험하기 위해 미리 안배된 시련이라는 점이다. 이를 대표하는

16) 당삼장은 旃檀功德佛, 손오공은 鬪戰勝佛, 저팔계는 淨壇使者, 사오정은 金身羅漢의 神位에 오른다. 『서유기』, 제100회, p.1130.

17) 『서유기』, 제99회, p.1116.

18) 9는 陽의 極數로 9\*9 81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예로 ‘四聖試禪心’을 들 수 있다. 제17회에 관세음보살은 文殊菩薩, 普賢菩薩, 黎山老母 등과 함께 취경단원들의 취경에 대한 의지와 신심을 시험한다. 과부와 그 딸들로 변신한 보살들은 많은 전답과 미모를 내세우며 취경단원들에게 고행을 그만 두고 풍요로운 장원에 남아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자며 유혹을 한다. 당삼장과 손오공, 사오정 등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만 본능적 욕망의 지배를 받는 저팔계만이 미색과 재물, 따뜻한 가정이 주는 편안함에 대한 갈구 때문에 관문을 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리는 수모를 겪는다.

### (3) 재난의 해결

취경단원들의 힘으로 재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손오공은 천상세계로 날아가 신들의 도움을 받아 재난을 해결하거나 석가여래부처나 관세음보살을 찾아가 재난을 해결한다. 그중 가장 적극적으로 재난을 해결해 주는 신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는 늙은 노파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재난을 예고하거나 직접 재난을 해결해 준다.

그는 黑風山 黑風怪를 사로잡아 재난을 해결해 주며 號山 紅海兒를 사로잡아 火焰山에 가로막힌 취경단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五莊觀에서 쓰러진 인삼과를 살려내고, 「琵琶洞受苦」에서는 요괴의 내력을 말해 주어 요괴를 무찌르게 하고, 「滅法國難行」에서는 노모로 변신하여 장차 재난이 발생할 것임을 미리 예고하는 등 취경단원들의 서행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관세음보살이 취경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취경단원들의 정신적 경지를 높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4) 空性에 대한 깨달음으로의 인도 - 上求菩提, 下化衆生

관세음보살이 재난을 통해 취경단원들을 단련시키는 최종적 목적은 바로 취경단원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그들의 정신적 경지를 높이는데 있다. 즉 취경단원들 전원으로 하여금 불교의 핵심교의인 ‘諸法無我’, ‘諸行無常’의 空性を 깨달아 그들 모두가 圓融無碍한 覺者가 되어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관세음보살은『서유기』전 스토리를 통하여 공성을 깨우치게 하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이와 같은 관세음보살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깨우침을 가장 먼저 증득한 인물은 손오공이다. 당삼장이 관세음보살의 발밑에 엎드려 경의를 표할 뿐,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데 반해 손오공은 가장 먼저 空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자신이 전수받은 空性の 요체를 사부인 당삼장에게 서천 길 내내 깨우쳐줌으로써 그의 정신적 경지를 높이는 스승의 역할을 맡는다. 이처럼 손오공이 관세음보살의 ‘以心傳心’의 直傳 제자로 선택받은 이유는 손오공이 마음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sup>19)</sup> 또 空性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을 상징하는 悟空이라는 이름으로부터도 손오공이

19) 손오공은 ‘心猿’, ‘心主’, ‘心神’, ‘心’ 등 마음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에 의해 직전 제자로 선택받는다.

왜 관세음보살의 직전 제자로 선택되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관계로 손오공은 관세음보살로부터 전수받은 불교의 핵심 교의를 가장 먼저 깨달은 인물로 설정되며 그 결과, 이 둘 사이에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 같이 관세음보살과 손오공 사이에 형성된 긴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관세음보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 ① 觀世音菩薩 本心微妙 六字大明王眞言과 손오공

천계에 반기를 든 손오공을 제압하지 못하고 그가 다시 천계를 소란스럽게 하자 마침내 석가여래불이 나서서 손오공을 잡아 五行山에 가둔다. 이 때, 석가여래불은 ‘觀世音菩薩 本心微妙 六字大明王眞言(약칭 육자대명왕진언)’인 ‘옴 마니 반메 흠(唵, 嘛, 呢, 叭, 咪, 吽 om ma ni padme hūm)’을 사용하여 그를 五行山에 가둔다.

옴 마니 반메 흠의 의미를 보면 ‘옴’은 ‘歸依’를 의미하며 ‘마니’는 ‘마니주’ 혹은 ‘여의보주’란 뜻이다. ‘반메’는 ‘연꽃’을 의미하며 ‘흠’은 ‘깨뜨리다’라는 의미이다.<sup>20)</sup> ‘마니 반메’는 ‘연꽃 보좌 위의 여의보주’란 의미로 이것은 관세음보살이 손에 여의보주를 가지고 연꽃의 보좌위에 앉아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옴 마니 반메 흠의 온전한 뜻은 연화보좌상의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하여 온갖 업장과 장애를 깨뜨려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다는 의미이다.<sup>21)</sup> 또 다른 해석에 의하면 ‘옴’은 태초 이전부터 울려오는 우주의 소리 즉 진리 자체를 의미하며 보통 聖音이라고 한다. ‘마니’는 ‘마니주’ 혹은 ‘여의보주’라는 의미로 깨끗한 지혜를 상징한다. ‘반메’는 ‘연꽃’을 의미하며 무량한 자비를 상징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흠’은 우주의 개별적 존재 속에 담겨 있는 소리를 의미하며 우주 소리를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sup>22)</sup>

수행자가 이를 지극정성으로 염송하면 개별적 존재가 우주의 소리에 통합되어 법계의 깨끗한 지혜와 무량한 자비가 그대로 실현되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즉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에 의해 모든 번뇌와 죄악이 소멸되고, 온갖 공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석가여래불은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옴 마니 반메 흠 진언으로 손오공을 가두는데 500년이 지난 후 관세음보살이 진언을 떼어 내고 손오공을 구출한다.

석가여래불이 손오공을 가둘 때, 관세음보살의 진언을 사용한 것은 장차 관세음보살이 손오공을 구제하여 그로 하여금 서천으로의 길을 완주하게 함으로써 온갖 업장과 장애를 깨뜨리고 자기 안의 연꽃 중심에 도달하여 부처의 果位에 오른다는 사실을 미리 예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세음보살과 손오공 사이에 일찍이 형성된 특수 관계를 보여주며, 이러한 관계 아래서 관세음보살은 손오공이 공성에 대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계도와 가르침을 아끼

20) 이 옴(唵, om)자는 불교에서 의식을 행하거나 수행할 때에 염송하는 진언(眞言)의 최초로 오는 소리로써, 귀명(歸命), 비로자나불 등의 신성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21) 張靜二, 『西遊記人物研究』, 臺灣學生書局, 1984, p.246; 麻天祥, 『六字眞言淺釋』, 『中國政法大學學報』, 總第32期, 2012, pp.87-88 참조.

22) ‘옴 마니 반메 흠’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김영덕 「육자대명왕진언·천수다라니 수행과 깨달음」, 『大覺思想』, 제12輯, 2009, pp.137-141 참조.

지 않는다.

## ② 「반야심경」과 손오공

손오공은 깨달음을 증득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핵심교의인 공성에 대한 탁월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제17회에 관세음보살은 黃風怪를 사로잡기 위하여 황풍괴의 친구인 凌虛仙子로 변신한다. 요괴로 변신한 관세음보살을 보고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요괴가 보살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살이 요괴가 된 겁니까?(妙啊! 妙啊! 還是妖精菩薩, 還是菩薩妖精?)”라고 보살과 요괴의 모호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낸다.<sup>23)</sup> 이 때 관세음보살은 “오공아, 보살이든 요괴이든 결국 일념에서 나온 것으로 그 근본을 따진다면 모두가 다 무에 속하는 것이다.(悟空, 菩薩, 妖精, 總是一念, 若論本來, 皆屬無有.)”라고 답하며, 가르침을 접한 오공은 즉시 이 말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깨우친다.<sup>24)</sup> 결국 일념에 따라 구원의 보살이 되기도, 파멸의 요괴가 되기도 한다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만유의 본래 진면목(실상)은 ‘無有’로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임을 즉시 깨닫는다. 이처럼 번뇌와 미망의 마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가장 중요한 所依 경전으로 등장한 것이 「반야심경」이다. 제19회에 당삼장은 烏巢先師로부터 온갖 재액과 마장을 물리칠 수 있는 효능을 가졌다는 「多心經」을 전수받는데 이 「多心經」이 바로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의 원래 명칭은 「般若波羅密多心經(Prajñā-pāramitā-hṛdaya-sūtra)」으로 간단하게 「般若心經」, 혹은 「心經」으로 지칭한다. ‘반야’는 인간이 진실한 생명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예지를 말하며 보통 지혜로 번역된다. ‘바라밀다’에서 ‘바라’는 저 언덕이고 ‘밀다’는 건너다라는 의미로 彼岸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이다. 피안이란 깨달음을 얻은 뒤 들어가는 대자유의 세계, 해탈의 경지를 의미한다. 「心經」의 ‘心’은 골자 핵심, 본질이라는 의미로 심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큰 지혜로 피안으로 건너가는 핵심적인 부처님의 말씀’이 「반야바라밀다심경」에 내재된 의미이다. 이렇게 심오한 의미를 가진 경전을 「無心經」, 「一心經」이 아닌 「多心經」으로 지칭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서유기』가 풍자적 구조 위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5)</sup> 당삼장이 서행 길 내내 금과옥조로 받들고 간 「반야심경」의 앞부분을 인용하여 관세음보살이 증득한 반야지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손오공의 이해력이 어떠한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지 살펴보고 하겠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하여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취보고 모든 고난과 재액을 건너섰다.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密多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舍利子,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即是空, 空即是色. 受想行識, 亦復如是.)<sup>26)</sup>

23) 『서유기』, 제17회, p.201.

24) 『서유기』, 제17회, p.201.

25) 서정희, 「西遊記의 唐三藏 연구Ⅱ」, 『중국학연구』제 38집, 2006.12, pp.224-232 참조

26) 『서유기』, 제19회, p.221.

여기에 관자재보살이 등장하는데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명칭이다. 역사 인물인 당 현장이『심경』을 번역하면서 관세음보살의 자재함에 초점을 맞추어 관자재보살로 호칭한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舍利子에게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데 있어 五蘊이 공함을 비추어봄으로써 만유일체의 진상을 확연히 깨달아 일체의 고액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어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 受想行識, 亦復如是.’를 통하여 諸法이 空하다는 진리를 설하고 있다. 즉 모든 물질적 현상인 色과 정신 작용인 受想行識의 오온에는 본질적 속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하다고 파악한 것이다. 만약 존재와 세계의 본성인 공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세계에 사로잡히게 되면 미망과 무지 속에 빠져 고통과 번뇌 속을 헤매게 된다는 것이다. 반야심경은 ‘五蘊皆空’, ‘一切皆空’의 진리를 깨달아야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대자유, 대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이 설파한 오온개공, 일체개공의 심오한 진리를 일찌감치 깨우친 손오공은 정신적 차원이 나날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깨우친 공성의 진리를 당삼장에게 전수하여 그의 정신적 경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관세음보살의 반야지혜가 손오공에게 전수되며 손오공은 이를 다시 당삼장에게 전하는 식으로 공의 妙理를 전한다. 그러나 당삼장은 묘리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반야심경』을 외우고 있을 때, 요괴의 마수에 걸려 곤욕을 치르게 된다.『심경』에 대한 당삼장의 이 같은 無知는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연이어 재난을 만나게 만든다. 당삼장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손오공은『반야심경』의 구절을 가져와 당삼장이 인식하는 세계는 단지 삼장의 의식에 투영되어 들어오는 假有의 세계임을 설파하여 그의 두려움과 공포의 실상을 밝히고 미망과 무지 속에서 벗어나도록 촉구한다.

손오공이 말하길 : “스승님, 스승님께선 출가하신 분인데 꼭 속가 사람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 오소화상의 심경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거리낄 바가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고 전도몽상을 멀리 하라’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마음의 때를 씻고 컷속의 먼지를 씻어 내야하며 고난 중의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지혜와 덕을 겸비한 고승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부님 걱정 마십시오.” (『師父, 出家人莫說在家話. 你記得那烏巢和尚的心經云‘心無罣礙: 無罣礙, 方無恐怖, 遠離顛倒夢想’之言? 但只是‘掃除心上垢, 洗淨耳邊塵. 不受苦中苦, 難爲人上人.’你莫生憂慮…….”)<sup>27)</sup>

손오공은 『반야심경』의 諸法空相의 진리를 가져와 당삼장의 공포와 우려는 모두 당삼장의 전도몽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이 바로 고난의 實相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손오공이 당삼장을 계도하는 또 다른 예를 들어『반야심경』의 제법공상의 진리가 어떻게 소설의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지 보겠다.

손오공이 말하길 : “사부님께서는 오소선사의 『심경』을 또 잊어버리신 것 같군요.” 삼장이 말하길 : “『반야심경』은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가사나 바리때와 같아 오소선사께 가르침을 받은 후 어느 한 시라도 잊어버린 적이 있는 줄 아느냐? 거꾸로도 외울 수 있는데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말하길 : “사부님께서는 단지 외우기만 하셨지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27)『서유기』, 제32회, p.362

않으셨군요!” 삼장이 말하길 : “원숭이 놈! 어째서 내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냐? 그러는 너는 이해한단 말이나?” 손오공이 말하길 : “진 알지요, 알고말고요.”……삼장이 말하길 : “팔계야, 오정야, 함부로 말하지 말거라. 오공의 깨달음은 언어문자를 넘어선 진정한 깨달음이니라.” (行者道 : “師父, 你好是又把烏巢禪師「心經」忘記了?” 三藏道 : “「般若心經」是我隨身衣鉢. 自那烏巢禪師教後, 那一日不念, 那一時得忘? 顛倒也念得來, 怎會忘得!” 行者道 : “師父只是念得, 不曾那師父解得.” 三藏說 : “猴頭! 怎又說我不曾解得! 你解得麼?” 行者道 : “我解得, 我解得.” ……三藏道 : “悟能, 悟淨, 休要亂說. 悟空解得是無言語文字, 乃是真解.”)<sup>28)</sup>

손오공이 「반야심경」의 진의를 당삼장이 깨닫지 못했음을 지적했을 때 당삼장은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손오공의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임을 밝힌다. 이처럼 손오공이 관세음보살의 「심경」을 가져와 당삼장을 계도하고 당삼장 또한 가르침을 받아 정신적 경지가 점점 변화, 발전해 나가는 修心의 내용은 소설 작품의 중심주제로 자리하면서 스토리를 이끌고 나간다.

관세음보살의 가르침과 계도 아래 손오공을 위시한 취경단원들이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미망과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분투한 여정이 소설의 핵심내용을 구성한다. 즉 대해방, 대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의 화두는 전 서유의 과정에서 스토리 전개에 중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주제 구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관세음보살의 작용과 역할이 지극히 크다는 결론 아래, 그에게 어떠한 상징적 의미가 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 2) 관세음보살의 상징적 의미

### (1) 자애로운 母神

관세음보살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가지고 있는 대 자비심이다. ‘음란함을 탐하고 재앙을 즐기고, 살인과 싸움이 많은(貪淫樂禍, 多殺多爭) 남침부주의 사람들이 ‘고뇌를 벗어나고 재앙을 풀 수 있도록(超脫苦惱, 解釋災愆)’ 三藏眞經을 동토에 전해야 한다는 석가여래불의 말씀을 듣고, 관세음보살은 자애로운 母神으로서의 대자비심을 내어 취경사업의 주요 기획자로 나선다.<sup>29)</sup> 그의 주도 아래 취경 사업에 참여한 인물들은 모두 출가를 하는데 이는 모두 당삼장의 자비심의 감화를 받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볼 때 당삼장을 제외한 취경단원 모두는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 그 결과 악업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가없는 중생이다. 가없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개과천선 하도록 권유하고 그들은 그의 권유를 받아 속죄의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sup>30)</sup>

그의 모신으로서의 이 같은 자비심은 죄 많은 생명을 죄업 속에서 구제하여 새로운 생명

28) 『서유기』, 제93회, pp.1050-1051.

29) 『서유기』, 제8회, p.80; 98회, p.1107.

30) 당삼장만이 악행과 거리가 있다. 당삼장은 전생에 부처님의 두 번째 제자 金禪長老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 않고 태만히 했다는 죄 때문에 하계로 내려 온 인물이다. 『서유기』, 제100회, p.1129.

을 부여한 뒤, 그들 모두가 깨달음의 세계에서 정진하여 존재를 속박하는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한다. 즉 관세음보살은 불가가 제시하는 영적인 깨달음의 길을 통하여 또 한 번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손오공이 도움을 구할 때마다 관세음보살은 현신하여 손오공을 위로하고 손오공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주며 취경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비심은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진다는 평등성을 지닌다. 자비심은 요괴들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이 베풀어지며 그 결과 熊羆怪, 紅孩兒 등은 관세음보살의 제자가 된다. 사람들 역시 관세음보살을 만나게 되면 모두 보살의 명호를 외치며 그의 무릎 아래 엎드려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표시한다. 모든 재액과 고통을 해결해 준다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민간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소설 속에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 지혜노인(Wise Old Man)

관세음보살은 손오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노파의 모습으로 손오공 앞에 나타나 재난을 예고하거나 재난을 해결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 앞에 노인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시공과 문화적 간극을 초월하여 문학작품이나 꿈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못에 도끼를 빠뜨린 나무꾼 앞에 나타나 ‘이 도끼가 네 도끼냐?’를 묻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산신령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이 당면한 의문을 풀어주고 난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정신분석학자 융은 지혜노인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유형의 노인들이 『서유기』에도 빈번하게 보인다. 지혜노인은 주인공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식작용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心魂 즉 집단무의식 안에 존재하는 정신인소가 지혜로운 노인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융은 주장한다.<sup>31)</sup> 『서유기』에 노파의 모습으로扮한 관세음보살은 취경단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난제를 해결해주고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매진하게 하는 지혜노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5. 결론 -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은 心을 대표하는 손오공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유기』스토리 전개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동시에 주제 구성에도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손오공이 깨달음을 향하여 갈 때, 이를 완성하도록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의 역할과 작용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심리학의 거장인 융의 이론을 가져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정신적 존재로서 우리의 전체 정신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크기를 가진다. 그런

31) Steven F. Walker 지음, 장미경 등 옮김, 『융의 분석심리학과 신화』, 시그마프레스, 2012, pp.91-96 참조.

데 주인공 손오공은 『서유기』에서 전체 정신을 나타내는 인물이 아니라 정신활동의 일부분, 즉 당삼장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의식의 高等한 면을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손오공의 의식세계가 난관에 부딪쳐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을 때 전체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인 관세음보살이 등장하여 손오공으로 하여금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관세음보살은 원형인물인 자애로운 母神이나 지혜노인으로 등장하여 손오공의 의식 세계를 무한히 확장시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인도한다. 즉 『서유기』는 자아의식을 대표하는 손오공이 내면세계로의 여행을 통한 의식의 확장을 통하여 전체 정신의 중심인 나 안의 神, 즉 자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의 노정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의 의식이 확장되어 무의식(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과 통합될 때 비로소 전체 정신, 전체 인격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 전체 인격(자기)은 꿈과 환상 그리고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남겨진 상징사적 문헌 속에 원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sup>32)</sup> 관세음보살이야말로 진실로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남겨진 자비로운 구원의 모신, 지혜로운 현자로서의 원형상을 대표하는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관세음보살은 정신의 통일성, 전일성을 이룩한 전체 정신의 중심핵을 상징하는 원형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원형은 밝고 어두운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정신은 對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정신현상은 대극의 긴장과 갈등과 통합의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고 융은 주장한다.<sup>33)</sup> 이와 같은 융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神佛들은 빛과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흉측한 요괴들은 어둠과 악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불들이 무의식의 밝은 면, 선한 면을 상징한다면 요괴들은 무의식에 내재된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유기』 초반부에 “오공아, 보살이든 요괴이든 결국 일념에서 나온 것으로 그 근본을 따진다면 모두가 다 무에 속하는 것이다.(悟空, 菩薩, 妖精, 總是一念, 若論本來, 皆屬無有.)”라는 관세음보살의 답으로부터 관세음보살은 정신세계의 對極 관계, 즉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양면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통합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손오공에게 자기화 과정의 요체를 설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정신 현상은 對極의 긴장과 갈등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진행된다는 주장에 대입해 보면, 『서유기』는 자의식을 대표하는 손오공이 전체 정신 혹은 전체 인격을 상징하는 관세음보살의 인도 아래 대극의 합일, 통일을 상징하는 자기 인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정신의 중심인 신-鬪戰勝佛에 도달한 과정을 다채롭게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깊이 통찰한 융의 분석심리학을 가져와 관세음보살과 손오공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의 정신세계의 역학관계가 『서유기』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앞으로 분석심리학 이론을 원용하여 『서유기』를 연구한다면, 그 안에 내재된 풍부한 의미를 더욱 심도 있게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전체 정신으로서의 자기」, 「중심으로서의 자기·자기원형」, pp.53-59;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원형과 아니마·아니무스」, pp.31-32 참조.

33)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p.59 참조.

## 【참고문헌】

- 吳承恩, 『西遊記』, 臺北, 華正書局, 1978.
- 劉蔭柏, 『西遊記研究資料』,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 西遊記文化學刊編委會, 『西遊記文化學刊』1, 北京, 東方出版社, 1998.
- 張錦池, 『西遊記考論』,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2003.
- 竺洪波, 『四百年西遊記學術史』,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6.
- 鄭明嫻, 『西遊記探源』上·下, 臺北, 文開出版社, 1982.
- 張靜二, 『西遊記人物研究』,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4.
- 余國藩 著, 李奭學 譯, 『余國藩西遊記論集』, 臺北, 聯經出版社, 1989.
- 劉勇強, 『西遊記論要』, 臺北, 文津出版社, 1990.
- 劉蔭柏, 『西遊記發微』, 臺北, 文津出版社, 1995.
- 溫金玉, 「觀世音菩薩與女性」, 『中華文化論壇』, 第4期, 1996.
- 王海梅, 「西遊記與觀音信仰」, 『濰坊學院學報』, 第三卷第五期, 2003.09.
- 麻天祥, 「六字真言淺釋」, 『中國政法大學學報』, 總第32期, 2012.
- 智冠珣, 『伽山佛教大辭林』, 伽山佛教文化研究院出版部, 1978.
-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 서울대학교 서유기 번역 연구회, 『서유기』, 솔, 2004.
- Steven F. Walker 지음, 장미경 등 옮김, 『융의 분석심리학과 신화』, 시그마프레스, 2012.
- 천태불교문화원 편, 『묘법연화경』,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 2016.
- 이종섭, 『觀世音菩薩 信行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이동현, 『觀音念佛에서 感應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서정희, 「西遊記의 唐三藏 연구Ⅱ」, 『중국학연구』, 제38집, 2006.12.
- 김영덕 「육자대명왕진언·천수다라니 수행과 깨달음」, 『大覺思想』, 제12輯, 2009.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觀世音菩薩, 孫悟空, 空性, 大自由, 心路歷程		
	영문	Avalokitesvara, Sun Wukong, the Nature of Emptiness, Great Freedom, Mind Journey		
<div>Study of Avalokitesvara in <i>Journey to the West</i></div> <div>Suh, Jung-Hee</div> <p>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meaning implied in the name of Avalokitesvara and its divine status. The paper then derives the characteristics of Avalokitesvara by investigating the image of Avalokitesvara which appeared in <i>Journey to the West</i>, and further investigates the role and the meaning of Avalokitesvara.</p> <p>From the analysis of the image of Avalokitesvara, it is found that she is a character that infuses liveliness to the novel by being recreated as a humanized, worldly, popularized form through the process of artistic work, not as a Buddhist god who is serious and has a solemn image.</p> <p>Looking at the role and the meaning of Avalokitesvara, it is found that she organizes a group of individuals who travel to obtain Buddhist scriptures, tests the group to help them to realize the true meaning of obtaining the scriptures, and solves their problems when they are in crisis. The intention of such efforts by Avalokitesvara is to enhance their state of mind by guiding them to the realm of enlightenment. In other words, her role is to help them to realize the core teaching of Kong (Emptiness) and to obtain eternal freedom by becoming a harmonious enlightened being.</p> <p>It is also found that Avalokitesvara, who guides the group to the great liberation and freedom by enlightening them, not only leads the story of <i>Journey to the West</i>, but also is a main character who influences significantly the construction of theme.</p> <p>In conclusion, applying the analytical psychology of Karl Jung experimentally, it is shown that what kind of meaning the mind journey of Sun Wukong and his company implies on our state of mind and what role Avalokitesvara is playing.</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서정희 / 徐貞姬 / Suh, Jung-Hee		
	소 속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chsuh@pusan.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3월 02일	심 사 일	2018년 03월 08일
	수 정 일	2018년 03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03월 23일